

보도시점 2025. 10. 1.(수) 14:00
10. 2.(목) 조 간

배포 2025. 10. 1.(수) 09:00

‘원조에서 협력으로’...농식품부, 식량원조 및 UN 식품시장 첫 진출 기념

- 역대 최대 규모의 식량원조...쌀 15만 톤, 17개국의 818만 명에게 지원
- “K-ODA의 새로운 도약” 국산 영양강화립 201톤으로 UN 식품시장 첫 진출...
방글라데시 원조쌀 2만 톤에 혼합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 전북 군산항에서 ‘2025년 식량원조 15만 톤 출항 및 영양강화립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부 정경석 국제협력관, 기획재정부·조달청 관계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본부장, 방글라데시 대사, 농업인 단체와 국내 농식품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우리 쌀을 원조해 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쌀 15만 톤을 원조할 계획으로 아프리카·중동·아시아·중남미 17개국의 약 8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원조쌀 2만여 톤에는 국내기업 (주)젤텍이 공급하는 영양강화립(Fortified Rice Kernel, FRK)* 201톤이 혼합된다. (주)젤텍은 지난 9월 4일 WFP 납품업체로 공식 선정돼, 한국 기업 최초로 UN 식품조달시장 진입에 성공한 쾌거를 이뤘다.

* 쌀가루에 비타민·무기질 프리믹스를 첨가해 쌀알 모양으로 반죽·압출·성형한 인조미로, 쌀의 맛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양가를 높여 영양실조 예방에 효과적

농식품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영양강화립 뿐만 아니라 영양강화비스킷, 슈퍼시리얼 등 다양한 영양강화 제품을 전략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WFP 등 UN과 긴밀한 공조하에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량원조 ODA 사업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직무대리는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국내 농식품 산업이 세계식량위기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이를 계기로 국제농업협력 케이(K)-ODA와 농식품 수출 연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대한민국의 농식품 기업이 UN 조달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WFP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장(아니타 허쉬)도 “대한민국의 쌀 원조와 영양강화립 납품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WFP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아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붙임 1. 기념식 사진

2.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개요

3. 영양강화립 국산화 배경 및 제품 설명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실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책임자	팀 장	김신재 (044-201-2011)
		담당자	사무관	김규안 (044-201-2017)



붙임 1

기념식 사진

〈별도 첨부 예정〉

붙임 2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18년부터 매년 쌀 원조

* FAC(Food Assistance Convention): 대외경제장관회의('17.3), 국제개발협력위원회('17.6), 국무회의('17.8), 국회심의('17.12) 등의 절차를 거쳐 1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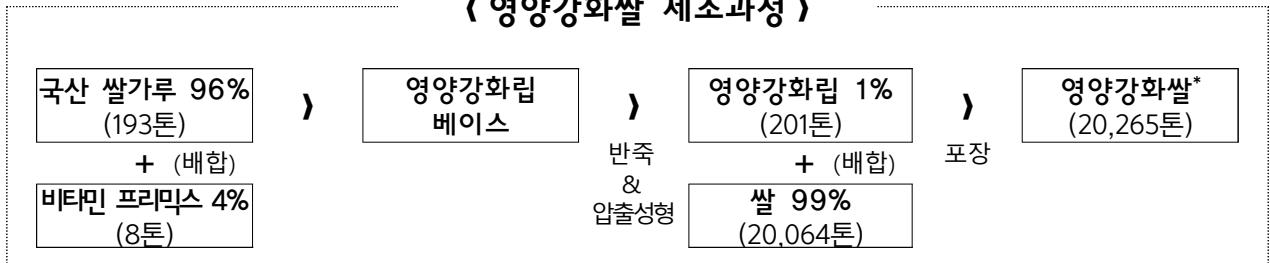
- 사업내용: 사업대상국에 대한 쌀 원조
- 사업 성과: 지난 7년간 연간 3~8백만명의 식량위기 인구 지원
 - 우리 쌀은 품질이 높고, 조리가 쉬워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난민·취약계층·학교급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 한국 원조 쌀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90% 이상 (WFP, '24.10월)
 - COVID-19, 러-우 전쟁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지원 계획에 따라 매년 7월 현지에 적시 도착하여 식량위기 완화에 현저히 기여

('18~'25년 지원실적)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물량(톤)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150,000
케냐	13,000	10,000	10,000	9,500	11,000	11,000	21,000	23,268
에티오피아	15,000	16,000	16,000	13,680	13,000	13,000	13,582	12,000
우간다	5,000	5,000	5,000	4,500	6,000	2,492	3,000	2,544
기니비사우	-	-	-	-	-	-	2,400	1,800
모리타니	-	-	-	-	-	-	6,720	13,020
시에라리온	-	-	-	-	-	-	2,400	1,800
모잠비크	-	-	-	-	-	-	3,000	2,328
마다가스카르	-	-	-	-	-	-	10,002	9,984
나미비아	-	-	-	-	-	-	-	4,896
시리아	-	-	-	3,000	-	3,006	-	2,400
예멘	17,000	19,000	19,000	18,000	18,686	18,000	18,000	23,424
레바논	-	-	-	-	-	-	-	864
라오스	-	-	-	1,320	1,314	-	-	-
필리핀	-	-	-	-	-	-	-	2,016
타지키스탄	-	-	-	-	-	-	-	960
아프가니스탄	-	-	-	-	-	2,502	4,896	4,032
방글라데시	-	-	-	-	-	-	15,000	20,064
쿠바	-	-	-	-	-	-	-	24,600
수혜인원(만 명)	300	300	300	486	362	415	767	818

□ **영양강화립**

(영양강화쌀 제조과정)



- (제품 설명)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쌀과 배합되는 인조미
 - WFP는 '29년까지 원조 쌀 중 영양강화쌀의 비중을 80%까지 확대 계획

□ **UN 시장진출 배경**

- UN 조달시장에서 농·식품분야의 규모는 27.5억불('23)로 3번째로 크지만, 우리 농식품기업은 진출 실적 및 벤더 등록 경험이 없었음
 - * 대한민국 기업의 UN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2.58억 불)
- '20년부터 민관 협력으로 한국 기업의 UN 식품시장 진출을 추진했으나, 국제인증 취득, 품목 발굴, 조달 규정 충족 등에서 어려움을 겪음
 - ⇒ 식량원조사업과 연계 가능한 **영양강화립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협의체* 구성하여 기술, 제도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지원 실시
 - * 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조달청 국제협력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WFP 한국사무소

□ **성과**

- (UN 식품시장 첫 진출) UN 식품시장에 영양강화식품을 국제적으로 납품 가능한 3번째 업체로 우리 기업이 등재
- (추가 수출 기반 마련) 국제 인증 취득 및 생산 경험 축적으로 신규 기업·품목(영양강화 비스킷, 슈퍼시리얼, 에너지바 등) 발굴 환경 조성